

### 나주시, ‘플랫폼종사자 일터 개선’ 이동노동자 쉼터 개소

사전 지문등록 필수, 야간 등록 4월 3일까지 운영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후 2시까지 이용 가능해

대리운전, 음식 배달, 퀵(Quick) 서비스 등을 하는 전남 나주시지역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공간이 문을 열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전남 빛가람 동 대양스퀘어가든 1층에 마련된 이동노동자 쉼터인 ‘힘이나주~’(명칭) 개소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한 ‘플랫폼종사자 일터 개선사업’ 선정을 통해 마련됐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후 2시까지이다. 총 125㎡(약 38평) 규모로 휴게실, 남·여 수면실, 교육 프로그램실로 구성되었으며 조명, 전자기기 등을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최첨단 IoT시설관리시스템이 적용된 무인 체계로 운영된다.

또 헬멧 건조기, 라커룸, 냉난방기, TV, 냉장고, 정수기, 공기청정기, 건강관리 기기 등을 갖춰 노동자들에게 안락한 휴식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쉼터를 이용하려면 사전 지문등록을 해야 한다. 지문등록은 쉼터 관리자 상주시간인 14시부터 18시 30분 또는 20시부터 23시까지 방문하면 된다. 야간 지문등록 특별기간은 4월 3일까지로 종료 이후엔 주간에만 등록할 수 있다. 시는 지문 등록자 수가 많아지면 휴식뿐만 아니라 분기별 맞춤형 생활·법률 상담,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쉼터가 우리 지



이동노동자 모두의 휴식처이자 소통과 교류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이용하시는 분들도 쾌적한 쉼터 운영을 위한 이용 수칙을 잘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시 이동 노동자 쉼터 이용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061-339-8821)으로 문의하면 된다. 나주=송준표기자

### 화순군, 비만 예방 합동 캠페인 실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8일 화순 고인돌전통시장 일대에서 비만 예방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3월 4일 ‘비만 예방의 날’을 기념해 가두캠페인과 홍보관 운영으로 건강 상식 O×퀴즈, 식생활 건강상담 등을 통해 비만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비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건강 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한국

건강증진개발원과 함께 지역주민 생활터 중심으로 지역사회 비만 예방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캠페인은 ‘가볍게 걷고 마시고 즐기자’를 주제로 일상에서 잠깐의 틈을 통해 가볍게 걷고, 건강한 물을 마시고, 나트륨과 지방을 줄이자는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비만은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병,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심뇌혈관질환의 원인이 되므로 평소 올바른 식습관 및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실천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화순군은 비만 예방의 필요성과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비만 예방법을 안내하고자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체성분측정 ▲맞춤형 운동 상담 ▲식이 조절 영양상담 등을 추진한다. 화순=박순철기자

### 신안군 ‘취약계층 및 결혼이주여성 취·창업 교육’ 실시

총 28명의 수강생 모집, 4개월 교육과정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취약계층 및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취·창업 자격증 이반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7

일까지 수요조사를 마쳤다. 커피바리스타, 요양보호사, 컴퓨터 IT3개 과정 총 28명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3월 9일에 개강해 6월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된다. 최근 3년간 취·창업 교육 과정을 마친 수강생 중 39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 중 일부는 신안군 자활 카페, 요양보호사, 조리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제적 자립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활동 중인 임자면 장OO 씨는 “신안군에서 교육 지원을 받아 직업을 갖게 되었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앞으로도 취약계층 및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경제적인 자립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안=이덕주기자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 좀 가게 응급차 좀 불러줘요”  
“지갑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줘요”

##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

국민 정재홍·서관우·조윤영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